전남도,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착수

세액공제·지역특산품 답례
추진단 신설·연구용역
전남사랑도민증 연계도

전남도는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조기 정착하도록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 활성화 방안,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추진할 전담부서 '고향사랑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상반기 시행령 제정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 기부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자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이상은 최대 16.5%까지 받는다.

기부금은 고향의 복지, 문화, 예술 등 사업에 사용하고, 답례품은 지역 농수산물과 문화예술 관광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중점 추진하는 '전남사랑도민증'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해 지역 발전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확대를 위해 전국단위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출향도민이 제도를 알도록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방침이다.

전남사랑도민증 전용 시스템도 구축해 사용자 중심의 신청·발급 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농산물 판매장·숙박시설 등 매력있는 할인가맹점도 지속 발굴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년 1월부터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관계법령 제정,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7개 기업 유치
476억 서면 투자협약

전남도가 목포시 등 5개 시·군과 협력해 전기이동수단, 건설자재 등 7개 기업을 유치, 476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목포, 나주, 광양, 장흥, 영암에 138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목포 대양산단에 49억원을 투자하는 ㈜대경케미칼은 스티로폼 제조공장을 신설해 지역 건축 현장과 단열패널 제조 공장에 납품한다. ㈜로웰에스엠은 나주 혁신산단에 52억원을 들여 전기카트용 중·소형급 모터와 컨트롤러 등을 생산하는 회로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장흥 바이오산단에는 데이앤바이오㈜가 73억원을 투입해 천연식품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을 증설한다. 영암 대불산단에는 ㈜빈센이 32억원을 투자해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전기추진 보트 생산공장을 증설한다.

광양에는 3개 기업이 270억원을 투자한다. ㈜전영알지오는 광양 초남2공단에 18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기술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분해해 재생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창포기술㈜은 초남2공단에 60억원을 들여 특수목적용 친환경 아스팔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해 GS칼텍스에 제품을 납품한다. ㈜정호시스템은 광양 신금산단에 30억원을 투입해 자동정밀제어시스템을 갖춘 패널 가공공장을 새로 짓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

남악 신속항원 검사 지정병원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 병원으로 지정된 무안군 남악 하나메디컬 센터를 방문, 현황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나주 강소특구, 잠재력·미래 에너지신기술 특화 집중해야"

광주전남연구원, 강소연구개발특구 4대 정책방향 제시

지난 2020년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맺은 전국 최초 '공기업형 강소특구'인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가 지역 잠재력과 미래 에너지신기술 특화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3일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정책방향'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R&D특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기술-창업-성장' 선순환 구조의 '자족적 혁신클러스터' 구축모델이다.

박웅희 선임연구위원은 "나주의 성장잠재력을 토대로 탄소중립·그린뉴딜 등 정부의 핵심정책과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등의 연계·발전은 지역의 중요한 이슈"라며 "하지만 강소특구 지원성과가 타 부처 기술사업화 유관사업과 중복될 수 있고, 지능형 태양광, 신재생 유지보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3개 특화분야에 있어 입주기업의 기술수요 반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선임연구위원은 나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4대 정책방향으로 ▲저탄소·디지털 지역경제 선도를 위한 에너지신기술 클러스터 구축 ▲벤처·창업하기 좋은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자립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특화사업 내실화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강소특구 편입으로 상생·협력 규모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혁신도시 주변 에너지산업 4대 거점단지와 한국에너지공대 등을 연계해 저탄소·디지털 전환 에너지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전 에너지밸리 조성 관련 혁신 역량을 한국에너지공대 및 지역대학과 결집해 과학기술기반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선도거점으로의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구 내 벤처·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스타기업 핵심지구를 집중 육성하고, 기구축된 에너지특화 산학연관 인프라 협력을 통해 기술수요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성장지원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시설 보호 기간'
만 18세서 24세로 연장
생계비 등 자립 지원도 확대

광주시가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지원을 확대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가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만 24세로 보호 기간을 연장했다. 광주시는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운영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기초생활 보장(생계비) 등 지원 정책을 펼친다.

전담 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대상자를 만나 생활, 주거, 진로, 취업 등을 상담한다.

광주시는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거쳐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임직원 성금 45억원을 기탁받아 서구 쌍촌동에 '희망 디딤돌센터'를 개소했다. 지상 5층 규모 시설은 1인 1실 원룸형 생활관 30실, 체력단련 시설, 북카페, 상담실 등을 갖췄다.

광주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4억 7000만원을 투입해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자립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으며 자립 수당도 기존 보호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임영희 광주시 출산보육과장은 "보호종료아동이 시설 퇴소 후 사회에 첫발은 내딛는 것은 인생의 첫 한파를 겪는 것과 같다"며 "자립의 길 5년간 든든한 동행이 되고,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공원 135곳 104억 들여
시민 중심 환경 개선 본격 추진

광주시는 "올해 총 104억원을 투입해 시민 중심 도시공원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60억원을 들여 관내 도시공원 135곳(근린공원 119곳, 주제공원 16곳)의 수목 및 시설물 관리, 산책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도시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푸른길공원 등에 대한 도시공원 시설개선(9곳 22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등 도시공원정비(15곳 10억원), 수완호수공원 등 공원 내 음악분수 운영(3곳 1억2000만원),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녹지 관리(105곳 10억원) 등 43억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신속한 공원 환경 조성사업을 목표로 지난달 17일 자치구에 사업비를 교부했으며, 앞으로 각 자치구에서 대상지별로 설계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공원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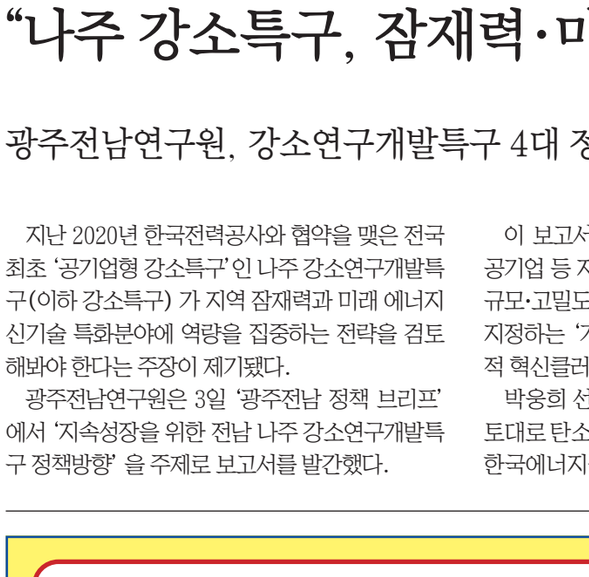
박금화 광주시 공원조성과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내 집 앞 공원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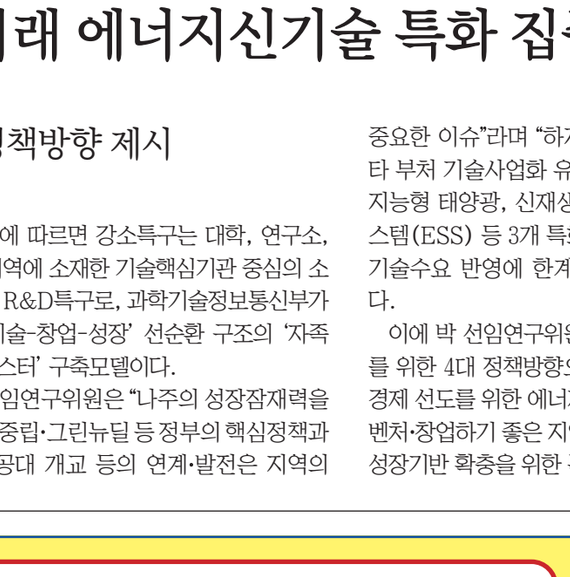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